

고등학교 여행지리에 대한 학생의 인식 조사: 김해시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손민석* · 이진희**

Students' Perceptions on Travel Geography in High School: A Case Study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in Gimhae

Minsuk Son* · Jinhee Lee**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진로선택과목인 여행 지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여행지리 선택의 주된 이유로 '여행'이라는 소재에 매력을 느꼈다고 답했으며, 학습 분량과 내용 수준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여행지리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원으로 여행의 목적과 방법, 기후 및 지형과 관련된 단원을 주로 선택했으며, 가장 어려웠던 단원으로도 기후 및 지형과 관련된 단원을 선택했다. 여행지리만의 차별성으로는 여행에 필요한 실제적인 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유용성,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학습 내용으로 인한 학습의 수월성 등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공간정보기술과 야외조사활동의 도입과 활용,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쓸모있는 학습 내용의 추가, 여행과 관련된 실제적인 활동의 도입, 여행과 관련된 진로 탐색의 기회 보장, 시각 자료 활용의 확대 및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여행지리와 관련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여행'의 의미에 관한 교사와 학생 간의 인식 차이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 둘째, 여행지리 교수·학습 자료의 다양화 필요성, 셋째, 여행지리 학습의 풍부화를 위한 GIS의 도입 및 활성화의 필요성, 넷째, 지리와 관련된 진로 탐색 기회 확대의 필요성이다.

주요어 : 여행지리, 진로선택과목, 학생의 인식, 지리교육, 고교학점제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toward travel geography, a high school career elective subject. The results show that students were attracted to the subject of 'travel' as main reason for choosing the travel geography, and the amount of study and the content level are appropriate. Units related to the purposes and methods of travel, climatology, and geomorphology were selected as the units that best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vel geography. The units related to climatology and geomorphology were selected as the most difficult units. Students believe that the subject is useful and easy to learn. Students suggest several ways to improve the travel geography including utilization of geospatial technologies and fieldwork, practical activities related to travel, and more opportunities for career exploration. Implications related to travel geography were derived. First, the need to resolv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regarding the meaning of 'travel'. Second, developing various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for the subject. Third, necessity of introducing GIS and its application to enrich the learning experience in the travel geography class. Fourth, more opportunities for career exploration related to geography.

Key Words : Travel geography, Career elective subject, Students' perceptions, Geography education, High school credit system

*장유고등학교 교사(Teacher, Jangyu High School, syc1616@jangyu-h.gne.go.kr)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jinhee@pusan.ac.kr)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리교과의 가장 큰 특징이자 성과는 고등학교 진로선택과목으로 여행지리를 신설했다는 점이다. 여행지리는 지리 과목이라는 기본 성격을 바탕으로, 진로선택과목의 성격과 '여행'이라는 주제를 고려하여 유용성, 흥미, 공감 능력을 높이고 미래 사회의 변화와 진로 탐색에 대한 통찰력과 상상력을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심승희·김현주, 2016). 또한, 학습자들이 통합적 탐구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 결정 능력, 존중·배려와 소통·공감하는 태도, 진로 탐색 능력,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 등과 같은 교과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교육부, 2015), 고등학교 학생들은 2019년부터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여행지리 과목을 선택·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여행지리는 그 과목의 신설과 학습 내용의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강창숙, 2016; 심승희·김현주, 2016) 새로운 과목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과목 신설의 취지에 맞게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이동민, 2016). 더불어 신설과목이 잘 정착하여 개발 의도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연구, 과목의 성격이나 특성, 그리고 교과서 내용 구성 등 여행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강창숙, 2016).

한편, 여행지리 과목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먼저, 고등학교에서는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¹⁾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김진숙 등, 2018).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부합하는 과목 선택,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발휘되는 수업과 평가 등을 특징으로 하며(홍후조, 2018), 학생이 자신의 진로 적성에 맞게 학생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이광우 등, 2017). 개별 교과과의 입장에서 고교학점제의 시행은 학생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여행지리 과목을 선택하게 하려면 여행지리 과목을 수강했던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2022 개정 지리 교육과정에서

도 여행지리는 융합선택과목으로 과목의 이수 구분만 변경되어 계속 선택교과로 남게 되었다(교육부, 2021). 따라서 학생들이 여행지리 교과와의 학습 내용, 분량, 학습 자료, 만족도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발과 현장의 수업에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여행지리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여행지리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여 앞으로 수행될 여행지리 관련 연구를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연구 과정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활용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융합선택과목으로 재구조화될 여행지리 과목(교육부, 2021)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의 실현을 극대화하고, 학생들의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행지리 수강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이유, 학습 분량과 내용 수준의 적절성, 개별 단원에 대한 평가, 학습자료, 타 지리 과목과의 차별성, 수행평가 특성, 수업 만족도, 과목의 개선 요소 및 수업 흥미도 증진 방안을 조사하였다.

2. 선행 연구 검토

여행지리 과목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여행지리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들이다. 우선, 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로서 심승희·김현주(2016)는 여행지리가 지리의 핵심 개념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 요소와 과목 목표, 그리고 성취기준을 진술함과 동시에 여행이라는 주제와 틀로 유용성, 흥미, 공감능력을 향상하도록 개발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여행지리의 개발 과정에서 여행의 의미와 공간적 범위 설정, 타 지리과목(한국지리 및 세계지리)과의 관계 설정 및 차별성, 성취기준의 내용 및 서술 방식, 진로선택과목으로서의 정체성 등의 논의 사항이 쟁점화되었으며, 향후 해당 논의 사항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교육과정 분석에 관한 것으로, 강창숙(2016)은 한국의 여행지리와 중국의 관광지리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두 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에서 발견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여행지리와

관련되는 시사점 또는 문제점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과목 편제의 문제점, 여행지리 과목의 목표와 교과 역량이 대부분 중복되거나 위계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점, 그리고 내용 체계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세계 각 지역에 대한 다양한 스케일의 접근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동민(2016)은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해당 과목의 도입 취지, 목표, 정체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KrKwic(한글 기반 의미분석 소프트웨어)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더불어 세계시민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관점과 비판적 관점으로 여행지리 교육과정을 분석한 이경한(2018)의 연구도 존재하였다.

그 외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여행지리를 포함한 고등학교 지리 과목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및 검토 과정을 분석한 전보애 등(2018)의 연구, 그리고 여행지리의 정착을 위한 여행지리 과목의 목표, 교과의 유용성, 수업 방법에 관한 연구(김기남, 2021)가 있었다. 여행지리의 실제적 운영과 관련된 연구로는 김지수(2020)의 연구가 유일하였는데,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여행지리 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행지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교수·학습 과정에서 타 지리과목과 대비되는 여행지리만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행지리 수업의 제약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여행지리 과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실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이렇듯 여행지리 과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여행지리를 직접 선택하고 체감하는 학생들이 여행지리 과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행지리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밝히는 여행지리에 대한 인식은 국가, 사회,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여행지리 교육과정이 '구현된 여행지리 교육과정(implemented travel geography curriculum)'으로서 받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지역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계획(이광우 등, 2017; 김진숙 등, 2018; 교육부, 2021)을 시

행 및 수립하고, 그에 따라 학교·지역 단위의 고교학점제 모델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의 일부 지역 또는 학교를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연구·선도학교'로 선정하였다. 그중 34개 지역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설정하였는데, 경상남도 김해시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선정되어 2025년부터 전면 적용될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²⁾ 따라서 김해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확대된 과목 선택권을 보장받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일반선택과목 또는 진로선택과목을 직접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의 선호에 따라 능동적으로 여행지리 과목을 선택하고 그것의 이수 과정에서 경험한 과목의 특성은 여행지리 과목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다.

2. 연구 참여 학생 및 소속 학교

본 연구에 참여한 김해시의 고등학생은 총 287명(A학교 29명, B학교 115명, C학교 24명, D학교 119명)으로 여행지리 수강자 중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이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소속한 학교는 김해시에 소재한 일반 고등학교 4곳(A~D학교³⁾)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2019년부터 여행지리 교과를 진로선택과목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다. 또한 4개의 학교 중 1곳(B학교)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⁴⁾, 3곳(A, C, D학교)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⁵⁾이다.⁶⁾ 이들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측면에서 학생들의 진로 계열에 따라 학급을 편성하고 교과 분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진로 계열에 따른 진로선택과목의 수강 신청에는 그 어떠한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 여행지리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수는 A학교 1명, B학교 2명, C학교 1명, D학교 2명으로 여행지리 수강 학생의 수 또는 지리과 교사들의 학교 내 과목 분배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한편, A, B, D학교는 여행지리 과목을 고등학교 3학년의 진로선택과목으로 개설하였지만, C학교는 해당 과목을 2학년에 개설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 설문 도구 및 연구 절차

고등학교 여행지리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 도구를 전통적인 유인물

표 1. 연구 참여 학생과 소속 학교

소속 학교	학생 수(남/여)	고교학점제 운영 특성	담당 교사 수	학년
A학교	29명(20명/9명)	선도학교	1명	3
B학교	115명(41명/74명)	연구학교	2명	3
C학교	24명(11명/13명)	선도학교	1명	2
D학교	119명(72명/47명)	선도학교	2명	3

표 2. 학생 설문 영역 및 내용

설문 영역		설문 내용
선택형· 서술형	과목 선택의 이유	1. 여행지리 과목의 선택 이유
	학습 분량	2. 타 진로선택과목과의 비교 시 여행지리 과목 학습 분량의 적절성
	내용 수준	3. 전체적인 여행지리 학습 내용 수준의 적절성
		3-1. 여행지리 수업을 어렵게 느낀 이유
	개별 단원에 대한 평가	4. 여행지리 과목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위
		5. 학습한 단위 중 가장 흥미로웠던 단위와 그 이유
		6. 학습한 단위 중 가장 어려웠던 단위와 그 이유
	학습자료	7. 담당 교사가 주로 사용한 학습자료
		8. 가장 선호하는 학습자료
	타 지리 과목과의 연관성(차별성)	9. 타 지리 과목의 수강 여부
9-1. 수강한 타 지리 과목, 그 과목과 여행지리 과목과의차별성(특징) 9-2. 타 지리 과목을 수강한 학생에 비해 여행지리 수업이 어려웠던 이유		
수행평가 특성	10. 여행지리 수업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수행평가	
수업 만족도	11. 여행지리 수업에 대한 만족도	
	11-1. 여행지리 수업에 만족한 이유 11-2. 여행지리 수업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	
과목 개선을 위한 고려 요소	12. 여행지리 과목이 개선되기 위한 향후 과제	
과목 추천 의향	13. 지인(후배, 친구 등)에게 여행지리 과목을 추천할 의향	
구술형	수업 참여 소감(의견)	14. 수강한 여행지리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
	수업 흥미도 증진 방안	15. 여행지리 수업의 흥미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향후 교수 방안	16. 향후 여행지리 과목의 효과적 교수 방안

형태의 선택형·서술형 문항과 학생 개별 면담을 위한 구술형 문항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표 2). 세부적으로 설문의 선택형·서술형 문항 구성은 2009 개정 교육과정 과학과 선택 과목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된 심재호 등(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학습 분량, 내용 수준, 흥미 항목을 활용하였다. 또한 교사 설문에 기반하여 고등학교 현장에서 교육하고 있는 여행지리 과목의 현황을 분석한 김지수(2020)의 연구를 토대로 개별 단원에 대한 평가, 타 지리 과목과의 차별성, 수행평가 관련 항목을 구성하였고, 연구자가 과목 선택의 이유, 학습자료, 수업 만족도 등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설문 도구의 구술형 문항은 사전에 결정된 구체적인 형

식이 없고 물음이 매우 상세하지 않은 비구조화 면담(unstructured interview)을 위한 것으로, 내용의 제약 없이 면담 참가자의 경험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Wilson, 2013). 비구조화 면담의 문항은 크게 3가지로, 수업 참여 소감(의견), 수업 흥미도 증진 방안, 향후 교수 방안을 묻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반영한 설문지를 여행지리 과목을 담당한 교사 3명, 대학교수 1명이 검토하였고, 검토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수정하여 설문 시행기로 설정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 수업 운영의 실제적인 특성⁷⁾을 반영하여 1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설문 시행기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는 실제로 2021년 7월 둘째 주, 일주일 동안

표 3. 여행지리 과목의 선택 이유

내용	응답(N=283)
여행이라는 흥미로운 소재에 매력을 느껴서	143명(50.5%)
지리 지식을 간단하게 학습하고, 학습 분량이 적을 것 같아서	50명(17.7%)
여행과 관련된 자신의 진로 탐색을 위해서	27명(9.5%)
여행지리 과목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5명(8.8%)
지리의 기초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서	14명(4.9%)
지리의 매력과 중요성 때문에	13명(4.6%)
기타(지리에 대한 관심, 타 지리교과와의 연관성, 지인의 추천 등)	11명(3.9%)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선택형·서술형 문항에 대한 답을 완성하는 데 평균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설문 진행 기간 중 구술형 문항은 연구자가 소속한 D학교의 여행지리 수강자 중 자발적으로 면담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더불어 여행지리 과목에 대한 균형적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면담 희망 학생 중 해당 과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생, 반대로 그 과목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학생 각각 6명을 선발하여 각각 15분 정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4. 분석

선택형 문항은 문항별 응답 수를 집계하고 그것의 비율을 파악하였다. 서술형 문항, 구술형 문항에 대한 응답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객관적·체계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내용분석법(Neuendorf, 2017)에 기반하여 결과를 비슷한 내용으로 분류하고 그것의 비율을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선택형·서술형 문항 설문지 중 특정 문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무응답으로 처리하였고, 동일한 번호의 선지를 반복적으로 선택한 설문지, '모름', '관심 없음' 등 무성의한 답변이 반복되는 설문지는 설문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결격 설문지로 설문 결과에 반영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선택형·서술형 설문

본 연구에 참여한 287명의 학생이 제출한 설문지 중 4장의 결격 설문지를 제외한 283장의 설문지를 분석하

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과목의 선택 이유

과목 선택은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관한 탐색의 과정이자 그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학생들이 특정 과목에 가지고 있는 인식이 반영되는 과정이다. 학생들이 밝힌 여행지리 선택의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행이라는 흥미로운 소재에 매력을 느꼈다는 내용이었다(143명, 50.5%). 다음으로 지리 지식을 간단하게 학습하고, 학습 분량이 적을 것 같았다는 내용(50명, 17.7%), 여행과 관련된 자신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27명, 9.5%), 여행지리 과목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는 의견(25명, 8.8%) 등이 순서대로 나타났다(표 3).

연구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여행지리 과목 명칭에 포함된 여행이라는 흥미롭고 신선한 소재에 매력을 느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행이 포함된 과목명은 학생들이 여행지에 대한 정보 공유, 여행 방법의 팁 등이 교과와 주요 내용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여행이라는 소재를 단순히 재미있고 쉬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김지수, 2020). 이러한 기대와 편견은 실제 여행지리에 대한 실망감을 유발하고, 수업 운영의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행지리의 개발 과정에서 지리 전문가들이 밝힌 여행의 의미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심승희·김현주, 2016). 물론 지리학에서 여행은 가장 기초적·기본적이면서 지리 교유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지식의 획득 방법(이동민, 2016)이지만, 이러한 여행의 의미를 학생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여행지리 교과를 선택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여행지리의 '여행'이 지니는 의미를 학생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은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학습 분량 및 학습 내용 수준의 적절성

학습 분량의 적절성	응답(N=283)	내용 수준의 적절성	응답(N=283)
매우 적음	8명(2.8%)	매우 쉬움	18명(6.4%)
약간 적음	30명(10.6%)	대체로 쉬움	73명(25.8%)
적당함	187명(66.1%)	적당함	176명(62.2%)
약간 많음	45명(15.9%)	대체로 어려움	13명(4.6%)
매우 많음	13명(4.6%)	매우 어려움	3명(1.1%)

표 5. 여행지리 수업이 어려운 이유

내용	응답(N=16)
지리 개념 및 용어의 어려움	9명(56.3%)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많음	3명(18.8%)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낯선 지역이 자주 등장함	2명(12.5%)
교과서에 제시된 설명이 부족함	1명(6.3%)
지리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음	1명(6.3%)

더불어 진로선택과목인 여행지리는 학생들에게 여행 뿐만 아니라 지리와 관련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충실히 제공해야 하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연구 참여자 중 약 10%가 여행지리를 통하여 자신의 진로 및 직업과 연관된 탐색 기회를 얻고자 한 사실을 고려할 때, 여행지리 과목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 학습 분량과 학습 내용 수준의 적절성

진로선택과목인 여행지리의 학습 분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여행지리가 추구하는 지리적 관찰력과 감수성, 지리적 의사결정력과 상상력을 길러주고, 진로 탐색 활동의 기회를 제공⁹⁾하겠다는 교육과정의 현실적인 구현을 저해하고, 학생들에게 지나친 학습 부담을 줄 수 있다(황규호, 2004).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여행지리의 학습 분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특정 과목의 학습 분량이 적절한지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그것의 기준이 필요한데,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인이 과거 수강하였거나 현재 수강 중인 다양한 과목의 학습 분량을 여행지리 학습 분량과의 대조 기준으로 삼아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여행지리 과목의 수강 과정에서 느낀 학습 분량에 대한 의견은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학생 중 187명(66.1%)이 여행지리의 학습 분량

이 적당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학습 분량이 약간 많다는 의견(45명, 15.9%), 약간 적다는 의견(30명, 10.6%), 매우 많았다는 의견(13명, 4.6%), 매우 적었다는 의견(8명,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행지리 수강자의 절반 이상이 해당 과목의 학습 분량이 대체로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여행지리의 학습 내용이 학생들에게 어렵거나, 지나치게 어렵게 인식될 경우, 많은 학생들이 여행지리 과목의 선택을 기피할 것이다. 학생들이 여행지리 수강 중 경험한 학습 내용의 수준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표 4). 연구에 참여한 283명 중 18명(6.4%)이 매우 쉬웠다, 73명이 대체로 쉬웠다(25.8%), 176명(62.2%)이 적당했다, 13명(4.6%)이 대체로 어렵다, 3명(1.1%)이 매우 어렵다고 인식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대다수(267명, 94%)가 해당 과목의 내용 수준이 쉽거나 적절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여행지리의 내용이 대체로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평가한 16명(5.7%)의 학생들이 여행지리 수업을 어렵게 느낀 이유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학생들은 지리 개념 및 용어의 어려움(9명, 56.3%),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많음(3명, 18.8%),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낯선 지역이 자주 등장함(2명, 12.5%), 교과서에 제시된 설명이 부족함(1명, 6.3%), 지리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음(1명, 6.3%)을 그것의 이유로 제시하였다(표 5).

여행지리 과목을 어렵다고 평가한 의견 중 절반 이상

표 6. 여행지리 과목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원

단원	응답(N=283)
II.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	89명(31.4%)
III.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	84명(29.7%)
I.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	71명(25.1%)
VI. 여행과 미래 사회 그리고 진로	16명(5.7%)
V. 여행자와 여행지 주민이 모두 행복한 여행	14명(4.9%)
IV. 인류의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	9명(3.2%)

(9명, 56.3%)이 지리 개념 및 용어와 관련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용어와 개념, 한자어가 학습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을 어렵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박보현·유미향, 2019). 특히 지리 개념과 용어의 상당수가 한자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한자가 상징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이전·이영민, 2001; 김다원, 2021). 지리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학습 내용의 이해뿐만 아니라 지리 학습에의 자신감과도 관련되고, 나아가 정확한 용어 사용을 통하여 지리적 사고력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Pickering, 2019)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과서의 분량을 줄여 오면서 지리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지리 용어 교육이 소홀해졌다는 주장(김다원, 2021)을 참고할 때, 지리 개념 및 용어가 어렵다는 의견,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많다는 의견, 그리고 교과서에 제시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 간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사들도 여행지리의 운영과정에서 난이도 조절의 어려움, 교과서상의 지리 지식의 내용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김지수, 2020), 이러한 문제점은 여행지리 과목에서 다루어야 할 지리 내용의 깊이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못하고, 교과서에 지리 지식 및 내용을 얼마만큼 실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개별 단원에 대한 평가

여행지리 개별 단원과 관련된 설문 문항에는 응답자의 편의를 위하여 특정 교과서(박종관 등, 2018)의 단원 구성을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타 교과서의 단원 구성도 본 연구에 사용된 교과서의 단원 구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응답을 이해하는 데에는 교과서 종류의 차이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여행지리 과목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원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해당 과목의 정체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여행지리 과목의 개별 단원 중, 여행지리 과목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단원의 순위는 표 6과 같다. 제1단원은 선택한 학생은 71명(25.1%), 제2단원은 89명(31.4%), 제3단원 84명(29.7%), 제4단원 9명(3.2%), 제5단원 14명(4.9%), 마지막으로 제6단원은 16명(5.7%)이 선택하였다. 제2단원, 제3단원, 제1단원의 선택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단원은 ‘여행의 목적과 방법’, ‘자연(기후, 지형)경관’,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것들로, 여행이라는 소재와 지리학의 전통적인 학습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학생들이 여행지리 과목의 성격을 진로선택과목의 특성으로 파악하는 것보다 신선하고 흥미로운 소재인 여행 또는 기본적인 지리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여행지리 과목을 수강하면서 흥미를 가장 많이 느꼈던 단원과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단원이 무엇인지를 각각 조사하였고, 학생들에게 각 단원을 선택한 이유를 자유 서술의 형태로 물었다. 학생들이 흥미를 크게 느꼈던 단원은 제2단원(119명, 42%), 제1단원(74명, 26.1%), 제3단원(58명, 20.8%)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7). 이는 앞서 학생들이 여행지리 과목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단원이라고 선택한 결과와 동일하였다. 세부적으로 제1단원을 선택한 이유로 여행이라는 소재, 여행에 유용한 정보, 여행의 의미에 관한 고민 등에서 흥미를 느꼈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2단원의 경우 지형 및 기후와 관련된 여행지 정보 습득, 세계의 지형 및 기후 학습, 아름다운 자연환경 학습 등이 흥미로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제3단원의 선택 이유는 세계 각국의 축제 정보 학습, 세계의 다양한 문화 학습 등에서 흥미를 느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은 교사들도 학생들이 제1단원, 제2단원, 제3단원의 학습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는 김지수(2020)의 연

표 7. 가장 흥미로웠던 여행지리 단원과 그 이유

단원	선택 이유(인원)	응답(N=283)
I단원	부담이 적은 여행이라는 소재를 학습하여 즐거웠다 (17명)	74명(26.1%)
	실제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학습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16명)	
	예상했던 여행지리 교과와 가장 비슷한 단원이라 흥미로웠다 (16명)	
	여행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고민할 기회를 얻는 것이 흥미로웠다 (11명)	
	일상생활에 유용한 지리정보시스템, 교통수단을 학습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6명)	
	여행의 의미와 여행의 다양한 종류를 학습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5명)	
	기타: 교과의 첫 단원이라 흥미로웠다 (3명)	
II단원	다양한 지형과 기후에 따른 여행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38명)	119명(42%)
	세계의 다양한 지형과 기후를 학습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34명)	
	세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학습이 흥미로웠다 (25명)	
	타 지리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이 다시 등장하여 흥미로웠다 (9명)	
	지형, 기후와 관련된 지구과학적 원리의 학습이 흥미로웠다 (7명)	
	과거에 학습했던 내용(통합사회, 한국지리 등)을 다시 학습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3명)	
	세부 지형들의 형성 과정을 학습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3명)	
III단원	세계 각국의 축제 정보를 학습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39명)	59명(20.8%)
	세계의 다양한 문화 학습이 흥미로웠다 (19명)	
	세계지리 교과와 연계되는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1명)	
IV단원	-	0명(0%)
V단원	대안 여행, 생태 여행, 공정 여행 등의 새로운 개념의 여행 학습이 흥미로웠다 (4명)	4명(1.4%)
VI단원	여행과 진로를 연계시키는 활동이 흥미로웠다 (19명)	19명(6.7%)
무응답	-	8명(2.8%)

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반면, 학생들이 여행지리 과목을 수강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꼈던 단원은 제2단원(60명, 21.2%), 제1단원(18명, 6.4%), 제6단원(16명, 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8). 특히, 학습 중 어려움을 느꼈다고 밝힌 단원 중 제2단원의 선택률이 가장 높았는데, 이것의 원인으로 지형 및 기후와 관련된 지리의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다(24명), 지형과 기후에 관련된 과학적 원리의 이해가 어려웠다(19명), 수많은 사례 지역, 많은 지형과 기후의 세부 종류로 인하여 학습량이 많아 어려웠다(17명)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이것은 김지수(2020)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용 중 교사들이 수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흥미를 보이지 않았던 단원으로 제2단원을 가장 많이 선택한 점과 그것의 원인으로 지형 형성 원리의 학습과 높은 지리적 지식의 비중 때문이라고 밝힌 점과 상당히 비슷한 결과였다.

한편, 연구 참여자 중 168명(59.4%)은 학습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단원이 없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는 앞선 문항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인 학생 대부분이 여행지리 과목의 학습 분량 및 내용 수준이 적당하고, 쉽거나 적절하다고 평가한 점과 큰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4) 학습자료

연구 참여자들에게 여행지리 과목에서 사용된 학습자료에 대한 설문은 중복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학습자료의 사용이 학습 내용, 학생의 특성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본 설문 문항을 통하여 파악한 결과는 4개 학교의 교사 6명이 운영한 여행지리 과목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표본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전국의 여행지리 수업 운영의 대표성을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 자료는 여행지리 수업 운영의 일부 사례로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여행지리 과목에서 사용된 학습자료와 선호하는 학습자료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았다. 학생들이 밝힌 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주로 사진자

표 8. 가장 어려웠던 여행지리 단원과 그 이유

단원	선택 이유(인원)	응답(N=283)
I단원	여행의 준비 과정, 숙지 사항을 모두 학습하는 것이 어려웠다 (10명)	18명(6.4%)
	지리 정보 시스템 학습이 어려웠다 (5명)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는 교통수단이 낯설어 어려웠다 (3명)	
II단원	지형 및 기후와 관련된 지리 용어와 개념의 이해에 어려움을 느꼈다 (24명)	60명(21.2%)
	지형과 기후와 관련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19명)	
	수많은 사례 지역, 지형 및 기후의 많은 종류로 인하여 학습량이 많아 어려웠다 (17명)	
III단원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모두 학습하는 것이 어려웠다 (6명)	9명(3.2%)
	여러 종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다 (3명)	
IV단원	미래 산업에 대한 학습이 어려웠다 (2명)	2명(0.7%)
V단원	-	0명(0%)
VI단원	진로와 여행을 연계시키는 것에서 막연함을 느꼈다 (7명)	16명(5.7%)
	교실 학습만으로 어떤 지역의 특성을 체감하기 어려웠다 (6명)	
	여행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어려웠다 (3명)	
어려운 단원이 없었다		168명(59.4%)
무응답	-	10명(3.5%)

표 9. 여행지리 과목에서 사용된 학습자료와 학생이 선호하는 학습자료

항목	여행지리 교과서	각종 영상자료	다양한 사진자료	여행과 관련된 읽기자료	우리 삶과 관련되는 수업자료	무응답
사용된 학습자료 (N=328)	44(13.4%)	104(31.7%)	115(35.1%)	42(12.8%)	23(7%)	0
선호하는 학습자료 (N=325)	34(10.5%)	93(28.6%)	113(34.8%)	25(7.7%)	59(18.2%)	1(0.3%)

료(35.1%), 영상자료(31.7%), 교과서(13.4%), 읽기 자료(12.8%), 삶과 관련된 자료(7%)의 순으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진자료와 영상자료의 활용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교사들이 수많은 지역의 문화 및 자연경관을 보여주는 사진, 그래프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가보지 못한 지역에 대한 시각적·학문적 정보를 제공하는 지리 교과서의 특성(이진희, 2018)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습자료는 사진자료(34.8%), 영상자료(28.6%), 삶과 관련된 자료(18.2%), 교과서(10.5%), 읽기 자료(7.7%)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9). 지리 교과에서 사진, 영상 등을 포함한 시각 자료의 활용은 학습자가 경험하지 못한 실생활과의 관계 학습, 추상적 개념의 이해를 도우며, 학습자의 흥미를 효과적으로 유발하기도 한다(목진돈, 2008; 윤지혜·남상준, 2017). 특히, 사진자료는 학생들이 지리 학습에 관한 흥미를 느끼게 하며 지

리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조철기, 2013).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가보지 못한 여행지를 경험하고, 다양한 지리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학습 흥미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여행지리 학습에서 선호하는 자료로 사진자료와 영상자료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판단한다.

5) 타 지리 과목과의 연관성(차별성)

여행지리 과목의 개발 과정에서 타 지리 과목과의 관계 설정, 차별성에 관한 논의가 존재하였다(심승희·김현주, 2016). 이러한 논의의 연장으로 학생들이 여행지리와 타 지리 과목과의 관계나 차별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행지리 수강자 중 타 지리 과목의 수강 여부를 먼저 조사하였고(표 10), 타 지리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제시한 여행지리 과목만의 특징 또는 차별점을 의미 구조로 묶어 제시하였다(표 11).

표 10. 타 지리 과목의 수강 여부(N=283)

타 지리 과목 수강자	타 지리 과목 비수강자
세계지리 수강 2명(0.7%)	181명(64%)
한국지리 수강 80명(28.3%)	
세계지리, 한국지리 수강 20명(7.1%)	

표 11. 타 지리 과목에 대비한 여행지리 과목만의 차별성(특징)

내용	응답(N=102)
여행에 필요한 실제적 정보(관광지, 여행자 보험, 교통수단 등) 제공으로 인한 유용성	51명(50%)
학습 내용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월한 학습	30명(29.4%)
세계 다양한 국가의 고유한 지형, 기후 및 문화 특성을 학습하는 것이 특별	9명(8.8%)
여행에 초점을 두고,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음	4명(3.9%)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다양한 여행지 학습	3명(2.9%)
잘 모르겠다	5명(4.9%)

먼저 여행지리 수강생 중 타 지리 과목을 수강했던 학생 102명이 밝힌 여행지리 과목만의 차별성(특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관광지, 여행자 보험, 교통수단 등 여행에 필요한 실제적 정보를 제공하여 유용성이 높다는 점(50%, 51명)이다. 그리고 29.4%(30명)의 학생이 학습 내용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학습하기에 수월했다고 밝혔고, 8.8%(9명)은 세계 다양한 국가의 고유한 지형, 기후, 문화 특성을 학습하는 것이 특별했다고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여행에 초점을 두고,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다는 의견(3.9%, 4명),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다양한 여행지를 학습할 수 있었다는 의견(2.9%, 3명)이 있었다. 여행지리의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쉽게 배우고 전문적인 지리 지식을 배우지 않도록 고려했던 점(심승희·김현주, 2016)이 확인되었으나, 여행지리에 대한 일부 연구(심승희·김현주, 2016; 김지수, 2020)에서 제시된 진로선택과목으로서 여행과 관련된 자신의 진로 탐색이 차별적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학생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부 교사들도 학생 개별의 진로 탐색을 촉진하는 수업을 계획하는 것이 어렵다고 평가했는데(김지수, 2020), 여행지리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여행, 지리와 관련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 볼 기회를 마련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여행지리 과목의 당위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추가적 논의가 시급하다.

학습자의 사전지식은 인지 부하(cognitive load)의 정도, 학습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van Gog and Paas,

2008; Kalyuga, 2009), 과제수행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강명희 등, 2009). 동시에 타 지리 과목에서 특정한 지리적 사례를 학습한 학습자에게 여행지리 과목에서 학습할 내용 중 이미 학습한 내용과 유사한 사례는 기존의 지식 네트워크에 포섭되고, 학습한 지리적 인과관계를 강화하게 된다(양병일, 2021). 이 때문에 여행지리 수강생 중 타 지리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이 타 지리 과목을 수강한 학생에 대비하여 느낀 여행지리의 난이도와 이에 따라 여행지리 학습이 어려웠던 이유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타 지리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던 여행지리 수강자들(181명)에게 타 지리 과목을 수강했던 학생들에 비하여 여행지리 학습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물음에 11명(6.1%)이 '매우 어렵다', 37명(20.4%)이 '조금 어렵다', 59명(32.6%)이 '보통이다', 54명(29.8%)이 '쉬운 편이다', 20명(11%)이 '매우 쉽다'라고 답하였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여행지리 학습이 어려웠던 이유로는 생소한 개념과 용어(35명, 19.3%), 지리에 기초가 없음(29명, 16%), 지리에 관심과 재미가 없음(11명, 6.1%), 교과 선택의 이유와는 다른 실제 수업의 내용(6명, 3.3%), 선생님의 어려운 지도(3명, 1.7%)가 제시되었다(표 12).

6) 수행평가 특성

학생들에게 여행지리 과목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수행평가의 종류를 중복으로 선택하도록 요청하였다. 여행 또는 진로 여행 계획서 작성(선택률 26.1%),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 조사(21.6%), 특정 지역의 관광 매력

표 12. 타 지리과목 수강생에 비하여 여행지리 학습이 어려웠던 이유

내용	응답(N=181)
생소한 개념과 용어	35명(19.3%)
지리에 기초가 없어서	29명(16%)
관심과 재미가 없어서	11명(6.1%)
교과 선택의 이유와 다른 실제 수업 내용	6명(3.3%)
선생님의 어려운 지도	3명(1.7%)
어렵지 않았음	97명(53.6%)

표 13. 여행지리 과목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수행평가

수행평가 종류	선택 수(N=417)
여행 또는 진로 여행 계획서 작성	109(26.1%)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 조사	90(21.6%)
특정 지역의 관광 매력 조사	88(21.1%)
여행 상품, 책자, 팸플릿 등의 개발	65(15.6%)
여행 산업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 및 특성 탐구	41(9.8%)
수업 내용 및 활동을 기록하는 학습지 평가	24(5.8%)

조사(21.1%), 여행 상품, 책자, 팸플릿 등의 개발(15.6%), 여행 산업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 및 특성 탐구(9.8%), 수업 내용 및 활동을 기록하는 학습지 평가(5.8%) 순의 결과가 나타났다(표 13). 진로와 흥미를 고려하면서 여행과 진로 탐색을 다루는 교과 내용 및 교과서 활동과 연계되는 여행 계획서, 진로 여행 계획서 작성 활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고(김지수, 2020), 전통적으로 지역을 연구하는 지리학의 특성을 드러내는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 조사 또는 특정 지역의 관광 매력(가치) 조사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7) 수업 만족도

수업을 통하여 학습자가 경험하는 교과 만족도는 성공적 학습을 위한 여러 요인 중 하나이며(주영주 등, 2010), 학습의 지속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Astin, 1984). 또한 교과가 제공하는 교육 경험에 관한 학습자의 주관적인 평가(Elliot and Healy, 2001)라는 측면에서 여행지리 수강자들이 표출하는 수업의 만족도는 과목의 유용성, 학업 성취도 등에 관한 학생들의 주관적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요소가 된다.

학생들이 밝힌 여행지리 수업의 만족도는 86명(30.4%)이 '매우 만족함', 50명(17.7%)이 '조금 만족함', 124명(43.8%)이 '보통임', 22명(7.8%)이 '조금 아쉬움', 1

명(0.4%)이 '불만족함'으로 나타났다. 40% 이상이 여행지리 수업을 평이하게 평가했고, 약 45%의 학생들이 대체로 만족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더불어 여행지리 수업에 대체로 만족했다는 긍정적 평가의 요인과 대체로 불만족했다는 부정적 평가의 요인을 추가로 조사하였고, 그 응답을 요약하면 표 14와 같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요인은 다양한 여행지의 정보를 얻고, 실제 여행에 유용한 것을 학습하여 좋았다는 '여행 정보 수집의 용이성과 유용성'(39명), 타 교과에 비하여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전문 지식의 불필요성'(30명), 다양한 영상과 사진 자료의 활용으로 여행지를 생동감 있게 학습하는 것이 좋았다는 '시각자료의 다양성과 높은 활용도'(25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요인은 여행보다 지리 지식의 분량이 더욱 많아 아쉬웠다는 '많은 분량의 지리 지식'(13명), 여행과 관련된 활동의 다양성이 부족했다는 '여행 관련 활동의 부족'(5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은 대부분 수업 운영과 결부된 것으로 교사들이 여행지리를 진로선택과목보다는 지리교과목으로, 여행보다는 지리에 더욱 비중을 두고 수업을 운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학생들이 밝힌 여행지리 수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 요인, 부정적 평가 요인은 향후 여행지리 과목 운영에서의 강화 요소, 보완 요소로 보인다.

표 14. 여행지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의 요인

긍정적 평가 요인(명)	부정적 평가 요인(명)
여행 정보 수집의 용이성과 유용성(39)	많은 분량의 지리 지식(13)
전문 지식의 불필요성(30)	여행 관련 활동의 부족(5)
시각자료의 다양성과 높은 활용도(25)	실제 체험 기회의 부재(3)
교사에 대한 호감도(11)	이론 수업의 지루함(2)
진로 탐색 기회의 확보(11)	
여행계획 수립의 이점(8)	
여행에 관한 고민의 기회 확보(7)	
지리 지식의 활용 가능성(5)	

표 15. 여행지리 과목 개선을 위한 고려 요소

내용	응답(N=283)
GIS 활용 수업, 구글 어스 조작, 야외조사 등의 새로운 수업 방법 도입	80명(28.3%)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쓸모있는 학습 내용의 추가	66명(23.3%)
여행 관련 내용의 실제적인 활동(여행 사진 찍기, 여행기 쓰기, 여행의 계획 및 실행 등) 도입	56명(19.8%)
여행과 관련된 진로 탐색 기회 보장	51명(18%)
우리나라 또는 세계의 여러 관광지 사례 추가	28명(9.9%)
무응답	2명(0.7%)

8) 과목 개선을 위한 고려 요소

학생들은 여행지리 과목을 개선하기 위해 GIS 활용 수업, 구글 어스 조작, 야외조사 등 새로운 수업 방법의 도입(80명, 28.3%),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쓸모있는 학습 내용의 추가(66명, 23.3%), 여행 관련 내용의 실제적인 활동(여행 사진 찍기, 여행기 쓰기, 여행의 계획 및 실행 등) 도입(56명, 19.8%), 여행과 관련된 진로 탐색 기회의 보장(51명, 18%), 우리나라 또는 세계의 여러 관광지 사례의 추가(28명, 9.9%)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표 15).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GIS와 구글 어스 등 공간정보기술의 정착을 위해 지리 교사들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고, 여행과 관련된 실제적인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여행지리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도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쓸모있는 학습 내용의 추가, 우리나라 또는 세계의 여러 관광지 사례의 추가는 교과서 구성 또는 교사의 수업자료 준비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할 요소로 보인다.

9) 추천 의향

선택형·서술형 설문의 마지막 문항은 친구, 후배 등을 포함한 지인에게 여행지리 과목의 수업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해당 문항에 대하여 105명

(37.1%)이 ‘매우 그렇다’, 85명(30%)이 ‘조금 그렇다’로 긍정적 반응을 보인 학생이 대다수였다. 그리고 ‘보통이다’(78명, 27.6%)를 선택하여 무난한 반응을 보인 학생도 상당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다(12명, 4.2%)’, ‘전혀 그렇지 않다(3명, 1.1%)’로 부정적 반응을 보인 학생들도 일부 존재하였다.

학생들이 여행지리 과목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 수업을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과목명에서 비롯되는 교과와 어떤 이미지, 관련성이 큰 다른 과목의 학습 경험 등을 활용하여 과목의 수업을 결정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친한 친구, 선·후배 등의 또래 집단이 자신의 행동과 가치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있으므로(조원호, 1993; Giddens and Sutton, 2009), 여행지리 과목을 수강했던 학생들이 친구나 후배에게 추천하는 내용은 향후 여행지리 과목의 선택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구술형 설문 분석 및 함의 도출

여행지리 과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6명의 학생, 부정적으로 평가한 6명의 학생⁹⁾들에게 수업 참여 소감(의견), 수업 흥미도 증진 방안, 향후 교수 방안을 각각 조사

하였다. 학생마다 각 문항에 답하는 소견이 서로 다르고, 일부 내용의 중복이 발생하여 구술형 설문의 분석은 답변의 내용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더불어 앞선 선택형 설문에서 도출한 내용을 연계하여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1) '여행'의 의미

학생들은 “여행이라는 과목(명)에서부터 흥미가 있었고 공부할 내용이 많지 않아서 정말 재미있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학생 1)와 같이 여행이라는 참신한 소재와 학습 부담이 크지 않은 점에 기인하여 수업에 즐겁게 참여했다는 소감을 표현했다(3명). 이들이 밝힌 의견 중 여행이라는 소재, 여행이 갖는 의미에 관하여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선택형 문항을 통하여 확인한 것처럼 연구 대상자의 과반수가 여행이라는 소재에 매력을 느껴 여행지리 과목을 선택하였다고 답하였다. ‘여행’이라는 소재는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과목 선택을 유도하기에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러한 ‘여행’에 이끌려 여행지리를 선택한 학생들은 과목 수강 후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행지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학생들이 존재했는데, 이들은 대체로 ‘여행’이라는 소재에 흥미를 느끼고 기대한 것과 달리 실제 수업이 ‘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과목 선택의 이유와 실제 수업 간의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5명). 일부 학생은 “사실 여행지리를 선택할 때 뒤에 있는 지리라는 글자보다는 앞의 여행이라는 글자를 보고 선택하게 되었는데, 여행과 관련된 정보가 있었지만, 지리에 대한 정보들이 훨씬 더 많아 저의 니즈(needs, 요구)에는 살짝 맞지 않는 그런 수업이었어요.”(학생 7), “처음 여행지리 수업을 들었을 때, 상당히 생소한 단어와 어려운 내용이 많았어요. 기초(지리 지식)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고, 관광지 학습을 기대한 여행지리는 오히려 여러 지형과 기후, 지구 과학적 내용을 많이 가르친 것 같아요.”(학생 8)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학생들이 지리와 여행 중 여행에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여행지리 과목에 대한 이미지를 자의적으로 그려내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여행’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도 존재한다. 구술 면담의 과정에서 ‘여행’의 의미를 두고 교사와 학생 간의 인식 차이를 언급한 학생(3명)도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여행이라는 것과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여행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여행

은 해외든지, 국내든지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먹고, 놀기도 하는 건데, 선생님들은 뭔가 지리 지식에 근거한 느낌이 강했어요. 앞으로 여행지리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학생 12)라는 의견을 밝혔다. 만약, 학생들이 여행을 단순히 ‘다양한 음식을 즐기고 노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여행지리가 지닌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김학희(2006)는 ‘관광’과 ‘여행’을 지리교육 차원에서 비교하여 ‘여행’의 적합성을 주장하였고, 심승희·김현주(2016)는 여행지리 개발 과정에서 ‘여가활동’, ‘여행’, ‘관광’ 등의 의미에 관하여 사전적·학문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여행’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선의 교육 현장에서는 ‘여행’의 의미를 두고, 교사는 ‘여행’을 ‘지리 지식에 근거한 여행¹⁰⁾’으로 정의한다면, 학생들은 어떤 여행지에서 ‘다양한 음식을 즐기고 노는 활동’으로 ‘관광에 가까운 여행¹¹⁾’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교사와 학생 간의 인식 차이는 학생들의 여행지리 선택의 이유를 왜곡시킬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학생이 기대했던 여행지리 수업과 실제 수업 사이의 괴리감을 유발할 수 있다. 여행지리에 내포된 ‘지리와 연계된 여행’은 단순히 ‘여가’, ‘관광’과는 대조되어야 하며, ‘지리와 연계된 여행’의 의미의 확립과 홍보는 분명히 여행지리 운영의 중요한 과제이며,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2) 교수·학습 자료의 다양화

학생들이 여행지리 과목에서 시각자료(사진자료, 영상자료)를 가장 많이 선호한다는 것을 선택형 문항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더하여 여행지리 수업의 흥미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도 사진과 영상을 포함한 시각자료 활용의 확대 및 강화를 제안하는 의견이 많았다(7명). “세계 여러 지형, 기후, 문화를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실제 사진과 영상이 (학습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예요. 또 요즘은 유튜브들이 어떤 여행지에 가서 올린 V-log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 수업이 엄청 재밌어질 겁니다.”(학생 3), “여행은 직접 가보는 거죠. 그러면 여행지리도 직접 여행하는 과목이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 여행지와 관련된 사진과 영상이 엄청 중요하겠죠? 지금보다 사진과 영상을 더 늘려야 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할 거예요.”(학생 11)라는 구체적인 의

견이 있었다. 여행지리 수업 중 여행과 관련된 매력적인 사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흥미로운 수업이 가능하다(김기남, 2021). 이렇듯 사진을 포함한 시각 자료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국내, 해외 여행지의 현지 상황을 그 장소에 직접 서 있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유용한 시각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교사들이 어떤 여행지를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경로는 인터넷, 교과서, 개인의 여행 경험 등에 한정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확보한 시각자료 또한 그것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에는 까다로움이 있으며, 교사마다 여행에 대한 경험도 상당한 편차가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교사들은 여행지리 과목에서 활용할 시각자료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교수·학습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김지수, 2020). 그러므로 수많은 교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로 다채로운 시각 자료,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각 자료의 활용을 조금 확장하면, 최근 지리 학습에서 논의되는 TV 여행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김현주, 2018), 증강현실 기술의 활용 가능성(오정준, 2012), 가상 환경의 체화적 디자인에 대한 활용 가능성(김민성, 2019) 등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가 교실 현장에 정착 또는 실현된다면 여행지리 과목의 흥미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특히, 증강현실 기술은 여행지리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그랜드캐니언 협곡의 형성 과정을 가상 환경을 통해 경험시키고, 감입곡류의 사실성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학습 내용의 실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오정준, 2012).

교수·학습과 연계되는 수행평가와 관련된 의견을 밝힌 학생도 있었다(1명). 학생 12는 “진로 여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수행평가가 처음에는 재미있게 느껴졌다. 그런데 수행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실제 여행에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이 생겼고, 계획만 세우는 활동이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학교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전국에 소재한 무작위의 고등학교를 검색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여행 계획서 작성’, ‘진로 여행 계획서 작성’을 수행평가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의 교육적 효과(김기남, 2021)가 분명하겠지만, ‘여행 계획서 작성’만이 지나치게 사용된다면 여행지리 수업 중 학생

들의 다양한 종류의 수행평가 참여 기회가 제한될 것이다. 이 때문에 여행지리 수행평가의 다양화도 꼭 필요하다.

3) 지리공간기술의 도입과 활용

여행지리를 효과적으로 교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실에서 경험하는 여행의 구체성과 실제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도출되었다(6명). 즉, 쉽게 갈 수 없는 어떤 여행지의 현지 상황을 실제와 같이 경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수업 도구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요즘엔 스마트 장비가 많이 발달했죠. 구글 어스는 세계 여러 곳의 상세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의) 사용을 더욱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학생 5), “국내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을 정해서 GPS, GIS를 이용해서 탐색하면, 여행지의 실제 모습을 더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우리가 정한 여행지로 야영이나 수학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요.”(학생 11) 등이 있었다. 즉, GPS 트래킹, 드론, VR, 구글 어스, GIS 등을 포괄하는 지리공간기술의 도입과 활용은 여행지리 학습에 새로운 감각으로써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학습자들에게 지리의 묘미를 느끼게 할 것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교과목, 직업 영역, 일상생활 등에서의 역량 강화로도 연계될 것이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6; 김민성, 2020).

지리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리공간기술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은 GIS이다. GIS는 세계적 차원의 복잡한 문제(예: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을 협력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며(Rickles and Ellul, 2017), 학생들의 정의적, 인지적, 비판적 영역의 발달에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다(김민성, 2010). 즉, GIS 교육은 학생들이 직면할 복잡한 문제를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해결할 근거를 마련해 준다. 또한 ‘여행’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 ‘GIS를 통하여 바라보는 여행’은 지리적 특성이 강한 관점일 것이다. 여행지리 수업 중 어떤 학생은 GIS를 활용하여 신두리 해안사구 여행을 위한 최단 경로 분석, 해안사구의 경사도 및 사면의 방향 분석, 표범장지뱀 서식지에 대한 근린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GIS의 수많은 교육적 효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중등 교육 현장에서는 GIS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준비조차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김민성, 2010). 여행지리를 포함한 지리 교과에서 GIS 활용의 보편화, 대중화는 학습의 풍부화를 이끌 것이다.

4) 진로 탐색의 기회 확대

면담 중 한 학생은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평가했지만, 지리와 관련된 진로 탐색에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1명). “저의 진로는 여행, 관광, 지리 쪽입니다. 그래서 여행지리 과목을 들으면 그(관련) 분야의 다양한 직업을 알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리와 관련된 직업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진로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어요”(학생 2)라고 언급하였다. 여행과 관련된 진로를 탐색하기 위하여 여행지리를 선택하였다는 10% 정도의 학생이 있었지만(표 3), 타 지리 과목에 대비하여 여행지리가 갖는 차별성으로 ‘진로’와 관련된 답변을 한 학생은 존재하지 않았다(표 11). 이 부분에서 여행지리가 개설 취지에 맞게 학생들에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여행지리는 기본적으로 진로선택과목 중 하나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교육부, 2015). 그러나 현장에서 여행지리 수업을 위해 활용하는 교과서(박종관 등, 2018)의 ‘여행과 미래 사회 그리고 진로’라는 마지막 단원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행’과 관련된 직업이 주를 이루고 ‘지리’와 관련된 직업은 등장하지 않았고, “그런데, 지리와 관련된 직업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진로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어요”(학생 2)라는 한 학생의 의견처럼 ‘지리’와 관련된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GIS 전문가,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 지리학연구원 등의 지리와 관련된 직업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타 지리 과목보다 여행지리의 과목 영역에 더욱 부합할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경남 김해시 4개의 일반고 학생 287명을 대상으로 여행지리 과목의 선택 이유, 학습 분량 및 내용 수준의 적절성, 개별 단원에 대한 평가, 학습자료, 타 지리 과목과의 차별성, 수행평가 특성, 수업 만족도, 과목 개선을 위한 요소와 수업 흥미도 증진 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학생들이 여행지리 과목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여행’이라는 소재의 흥미로움, ‘적은 학습 분량에 대한 기대’, ‘여행과 관련한 진로 탐색의 기회’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 분량과 관련해서는 연구 참여자의 과반수가 분량

이 적절했다고 평했고, 내용의 수준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쉽거나 적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행지리가 어려웠다고 밝힌 소수의 학생들은 그것의 이유로 지리 개념 및 용어의 어려움,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많음 등을 들었다. 개별 단원에 대한 평가로 여행지리 과목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원으로 여행의 목적과 방법에 관련된 단원, 기후 및 지형에 관련된 단원, 다양한 문화에 관련된 단원을 주로 선택하였다. 동시에 가장 어려웠다고 평가한 단원은 기후 및 지형과 관련된 단원이었으며, 그 이유로 지형 및 기후와 관련된 지리의 용어, 개념,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었다. 또 여행지리 과목의 운영에서 교사들은 시각자료(사진자료와 영상자료)를 주로 활용하였고, 학생들도 이러한 자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타 지리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여행지리만의 차별성(특징)으로 여행에 필요한 실제적인 정보(관광지, 여행자 보험, 교통수단 등)의 제공으로 인한 유용성, 학습 내용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한 학습 수월성을 주로 제시하였다. 한편, 타 지리 과목 비수강자 중 절반이 타 지리 과목 수강자에 비하여 여행지리 학습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지리의 생소한 개념과 용어, 지리의 기초 지식 부재로 인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일부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은 여행지리 과목에 가장 적합한 수행평가로 여행 또는 진로 여행 계획서 작성,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 또는 관광 매력 조사, 여행 상품 및 책자 등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약 절반은 여행지리 수업에 대체로 만족하였다고 평가했으며, 그 이유로 다양한 여행지의 정보를 얻고 실제 여행에 유용한 것을 학습했다는 의견, 타 교과에 비하여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서 좋았다는 의견, 다양한 영상과 사진자료의 활용으로 여행지를 생동감 있게 학습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대로 약 8%의 학생들은 여행지리 수업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평했으며, 여행보다 지리 지식의 분량이 많아 아쉬웠다는 의견, 학습 분량이 많았고 직접적인 여행의 경험과 체감을 하지 못해 아쉬웠다는 의견, 여행과 관련된 활동의 다양성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구술형 설문을 통하여 여행지리 과목의 개선 요소, 흥미도 증진 방안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였고, 그 내용들을 종합,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행지리 과목에 대한 4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여행’의 의미에 관한 교사와 학생 간의 인식 차이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학생이 여행지리 과목을 선택한 이유로 ‘여행’이라는 소재에 매료되었다고 밝혔으며, 여행을 ‘관광에 가까운 여행’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교사들은 여행을 ‘지리 지식에 근거한 여행’으로 인식하고, 여행지리에서 지리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이유를 왜곡시키고 기대했던 수업과 실제 수업과의 괴리를 유발할 것이다. 둘째, 여행지리 교수·학습 자료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지리 수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교수의 질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사용하는 자료의 질에 의해 결정되나(Robinson, 1987), 교사가 좋은 수업 자료를 만드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운 과업이다(조철기, 2014). 여행지리 과목과 관련된 교수·학습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김지수, 2020)를 고려했을 때, 학생들에게 다양한 여행지의 생동감을 느끼게 해주고 학습 내용의 실제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절실하다. 셋째, 여행지리 학습의 풍부화를 위한 GIS의 도입 및 활성화¹²⁾이다. 교육 현장에서 GIS의 도입 및 적용은 분명히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다(김민성, 2010). 하지만 GIS의 교육적 효과는 수많은 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으며(김민성, 2010), 효과적인 여행지리 교수·학습을 위해 여행과 관련된 구성성과 실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더불어 GIS의 도입과 활용의 문제는 지리와 관련된 진로 탐색 기회의 확대라는 네 번째 시사점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미루어 둘 수 없는 과제이다. 넷째, 지리와 관련된 진로 탐색의 기회 확대이다. 기본적으로 여행지리 과목은 진로선택과목으로 학생들의 진로 탐색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교육부, 2015). 하지만 여행지리가 ‘지리’와 관련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없다. 우리는 지리와 관련된 직업이 상당히 적고, 자신의 진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한 학생의 의견에 주목해야만 한다. 이러한 시사점들은 2022 개정 지리교육과정 개발에서 나타난 지리 선택과목 개발의 지향점¹³⁾(김혜숙 등, 2022)과도 일부 맞닿으며, 향후 융합선택과목으로 운영될 여행지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일반고 고등학생만으로 한정하였고, 이들이 수강한 여행지리

과목은 6명의 교사에 의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표집오차(sampling error)를 포함할 수 있어 연구의 결과를 전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로선택과목인 여행지리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융합선택과목으로 재구조화될 여행지리 과목에서 고려해볼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 속에서 여행지리가 지리교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학생들이 지리의 가치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

註

- 1) 이광우 등(2017)은 고교학점제를 ‘교과(과목)의 성취기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이수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교과(과목)별 학점이 누적되어 최소 졸업 학점에 도달하는 학생에게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 2) 경상남도교육청, 2021, 「경남형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대비 2022~2024년 단계적 이행 계획」.
- 3) 연구에 참여한 4개의 고등학교를 가나다순에 의하여 임의로 A, B, C, D학교로 명명하였다.
- 4)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제도의 개선 및 소요 인프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 요청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지정한 학교(교육부 고교학점제 운영 홈페이지: <https://www.hscredit.kr/mng/oprtCase.do>, 최종 접속일: 2022.01.12.).
- 5) 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교학점제에 관한 지역별 다양한 운영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도 교육청이 학교의 자체 계획을 평가하여 지정·운영하는 학교(교육부 고교학점제 운영 홈페이지: <https://www.hscredit.kr/mng/oprtCase.do>, 최종 접속일: 2022.01.12.).
- 6) 경상남도교육청, 2021, 「2021학년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김해지구) 운영 계획」.
- 7) 연구 참여 학교의 대부분이 여행지리를 고등학교 3학년의 진로선택과목으로 편성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의 2학기 수업은 일반적으로 대입 시험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 8)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ncic.re.kr/>, 최종 접속일: 2022.01.11.
- 9) 여행지리 과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생은 학생 1~학생 6, 부정적으로 평가한 학생은 학생 7~학생 12로 표현하였다.
- 10) ‘지리 지식에 근거한 여행’의 의미를 고찰하자면, 먼저 여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사전에서는 여행을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최종 접속일: 2022.01.19.)이라고 정의하였고, 김광근 등(2001)은 어떤 목적을 위해 또는 어떤 수단에 의하여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행위 또는 일상생활이 아닌 어떤 목적을 위해 생활권 밖으로 이동하는 행동이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김학희, 2006에서 재인용). 여행에 의미에 관한 두 가지의 정의를 조합하면, 어떤 목적 또는 어떤 수단에 의한 일이나 유람이 행위의 목적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벌어지는 위치 또는 장소는 행위자의 일상생활권을 벗어난 다른 고장이나 외국이 된다. 이를 토대로 ‘지리 지식에 근거한 여행’은 여행자가 일상생활권이 아닌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서 어떤 목적 또는 수단에 의한 일이나 유람을 지리 지식에 근거하여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 11) 관광은 사전에서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경, 풍습, 문물 따위를 구경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최종 접속일: 2022.01.19.)으로 정의되고 있다. 김학희(2006)는 관광의 의미를 살펴보면, 룬드버그(Lundberg)가 관광객의 요건으로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여 여행 목적이 즐거움(pleasure)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관광은 여행과 어떤 목적, 행위가 발생하는 위치 또는 장소의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여행과는 달리 풍경, 풍습 등을 구경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심리에 즐거움이라는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 중 일부는 여행을 ‘어떤 여행지에서 다양한 음식을 즐기고 노는 활동’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관광에 가까운 여행’은 어떤 여행지에서 심리적 즐거움(음식을 즐기거나 노는 행위에서 비롯

- 되는 즐거움)만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 12) 지리 수업에 활용될 수 있는 지리 관련 기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GIS라고 판단하였다.
 - 13) 김혜숙 등(2022)은 2022개정 지리교육과정 지리 선택과목 개발의 지향점을 첫째, 학교 지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는 기초 소양 및 학문 분야의 바탕이 되는 지리 과목을 개발하는 것, 둘째, 학생의 진로와 직업과 연계하여 학습할 가치가 있는 지리 과목을 개발하는 것, 셋째, 급변하는 미래 세계와 지구촌의 변화, 국가와 지역 공동체의 미래 등에 비추어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주제를 다루는 지리 과목을 개발하는 것, 넷째, 학생의 생활과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탐구 주제를 연결할 수 있는 지리 과목을 개발하는 것, 다섯째, 지리를 싫어하는 학생까지도 폭넓게 포용할 수 있는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매력적인 지리 과목을 개발하는 것이라 밝혔다.

참고문헌

- 강명희·김미영·김민정·박효진·구진아, 2009, “학습자의 사전지식, 인지부하, 몰입, 학습성취도 간의 관계 규명” *교과교육학연구*, 13(2), 369-391.
- 강창수, 2016, “한국의 여행지리와 중국의 관광지리 교육과정 비교”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1), 267-285.
- 교육부, 2015,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4])」.
- 교육부, 2021,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교육부 서지자료 (2021.2.16.).
- 김광근·김형섭·이준호·장세목·한동운·전영상·권정택·장경수, 2001, 「관광학원론」, 서울: 백산출판사.
- 김기남, 2021, “여행지리 정착을 위한 세 가지 질문과 도전” *한국사진지리학회지*, 31(1), 90-107.
- 김다원, 2021, “초등 사회과교육에서 지리용어 교육의 개선 방향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7(4), 528-544.
- 김민성, 2010, “교육 현장의 GIS 관련 상황과 교육적 사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2), 173-184.

- 김민성, 2019, “체화된 인지의 의미와 지리교육에서의 활용” 한국지리학회지, 8(1), 1-18.
- 김민성, 2020, “캐나다 온타리오주 지리교육과정의 특징과 시사점: 역량기반 관점에서의 접근” 한국지리학회지, 9(3), 441-456.
- 김지수, 2020, “고등학교 「여행지리」 과목의 학교교육 현황: 교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4), 17-35.
- 김진숙·이광우·조보경·이민형·임유나, 2018,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진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학희, 2006, “세계지리에서 여행의 교육적 의미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4(4), 231-250.
- 김현주, 2018, “TV여행프로그램을 통한 세계 지역 학습의 가능성 탐색 -<세계테마기행>과 <꽃보다 청춘>, <배틀 트립>속 ‘라오스’를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6(4), 79-98.
- 김혜숙·조철기·김병연, 2022, “2022 개정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에 따른 지리교육과정의 개발 방향과 과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0(1), 77-89.
- 목진돈, 2008, “중학교 사회 교과서 삽화 자료에 대한 분석: 3학년 지리 영역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보현·유미향, 2019, “어휘 난이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연구 -국어와 영어 교과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2), 295-304.
- 박종관·홍현철·김기남·양향자·김지호·윤지현·신혜은, 2018, 「고등학교 여행지리, 서울: 천재교과서.
- 심승희·김현주,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진로선택과목 「여행지리」의 개발과 관련 논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1), 87-98.
- 심재호·박현주·이준기, 2015,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과학 선택 과목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 조사” 과학교육연구지, 39(2), 133-150.
- 양병일, 2021, “지리적 사고의 이해를 위한 인지 전략 모델의 제안” 한국지리학회지, 10(2), 193-206.
- 오정준, 2012, “지리 학습에서 증강현실 기술의 활용 가능성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1), 79-94.
- 윤지혜·남상준, 2017, “학습자의 자유 연상법에 따른 사회 교과서 지리영역 시각 자료의 적합성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5(4), 19-33.
- 이경환, 2018,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세계지리와 여행지리 교육과정의 비판적 분석” 국제이해교육연구, 13(2), 39-75.
- 이광우·김진숙·이근호·한혜정·이주연·김경자·형인아, 2017,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고교 교육과정 방향 탐색 연구: 학습자 중심 고교학점제 실행 방향 및 과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동민, 2016,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의미구조 분석” 한국지리학회지, 5(1), 1-11.
- 이전·이영민, 2001, “쉬운 우리말 지리용어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35(1), 1-11.
- 이진희, 2018, “지리 수업시간에 다루어지는 지리 재현물이 학생의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6(3), 91-103.
- 전보애·길현주·김민숙·김인철·범영우·서지연·성정원·오테훈·이윤구·채나미·이동민,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 교수·학습자료 개발 과정에 대한 논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6(2), 17-34.
- 조원호, 1993, “학업성취동기에 미치는 친구의 영향” 교육논총, 13(5), 105-121.
- 조철기, 2013, “비주얼 리터러시에 기반한 사진 활용 지리수업 방법”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1), 13-23.
- 조철기, 2014, 「지리교육학, 서울: 푸른길.
- 주영주·임연옥·손현수, 201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제가치의 학습몰입, 교과 만족도, 학습지속의향 예측” 직업능력개발연구, 13(3), 101-122.
- 홍후조, 2018, “고교 학점제 도입의 문제와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 699-724.
- 황규호, 2004, “교육내용의 적정화 기준 탐색” 교육과정연구, 22(3), 1-25.
- Astin, A.W., 1984, Student Involvement: A Developmental Theory for Higher Educ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4), 297-308.
- Elliot, K.M. and Healy, M.A., 2001, Key Factors Influencing Student Satisfaction Related to Recruitment and Retention, *Journal of Marketing for Higher Education*, 10(4), 1-11.
- Giddens, A. and Sutton, P.W., 2009, *Sociology, 6th ed.*, Cambridge, UK: Polity Press(김미숙·김용학·박길성·송호근·신광영·유홍준·정성호 역, 2011, 「현대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 Kalyuga, S., 2009, *Cognitive load factors in instructional design for advanced learners*, Hauppauge, New York: Nova Science Publishers.
-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6, *Learning to Think Spatially: GIS as a Support System in the K-12 Curriculum*,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 Neuendorf, K.A., 2017, *The Content Analysis Guidebook,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Pickering, S., 2019, Key Skills, in Willy, T., ed., *Leading Primary Geography*, Geographical Association.
- Rickles, P. and Ellul, C., 2017, Innovations in and the changing landscape of geography education with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41(3), 305-309.
- Robinson, R., 1987, Discussing photographs, in Boardman, D., ed., *Handbook for Geography Teachers*, Sheffield: The Geographical Association.
- van Gog, T. and Paas, F., 2008, Instructional efficiency: Revisiting the original construct in educational research, *Educational Psychologist*, 43(1), 16-26.
- Wilson, C., 2013, *Interview Techniques for UX Practitioners: A User-Centered Design Method*, Burlington, MA: Morgan Kaufmann Publishers.
- 교신 : 이진희,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jinhee@pusan.ac.kr)
- Correspondence : Jinhee Lee, 46241,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njeong-gu, Busan,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Email: jinhee@pusan.ac.kr)
- 투고접수일: 2022년 2월 21일
심사완료일: 2022년 3월 8일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15일

